

순천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존치나 폐지나

24일 시민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참석 인원 50명 제한...온라인 생중계

순천시가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폐지<광주일보 2월 20일자 11면> 여부를 결정한다.

10일 순천시에서 따르면 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과 관련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 경과보고와 함께 전문가·학교오케스트라단·시민단체·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석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며, 순천문화예술회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순천시는 당초 3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돼 이날 열기로 했다.

공청회 참여접수는 선착순이며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확인하면 된다.

순천시는 앞서 지난 2월 행정 낭비 요인 최소화

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몰사업으로 분류된 청소년교향악단을 폐지하고, 대신 음악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음악영재아카데미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단원과 학부모들이 청소년교향악단 존치를 요구하며 순천시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들어 존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청소년교향악단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애지중지 길렀는데”...구례서 수해로 숨진 소 위령제

참사 원인 규명·피해 보상 촉구도

“물에 빠져 죽어간 소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10일 오전 10시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수해 참사로 죽어간 소의 넋을 달래는 곡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를 키우는 농가가 모여있는 양정마을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달 7~9일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다.

사람은 모두 대피했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소 500여마리가 수장됐고, 일부 살아남은 소 200여마리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폐사했다. 일부는 물에 떠내려가다 우연히 발이 닿은 지붕 위에 올라가 구조되는 광경도 벌어졌다.

주민들은 죽어간 소들의 영혼과 농민들의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 이날 위령제를 열었다. 애지중지 키웠던 소와 작별을 고하던 주민들은 끝내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위령제를 시작으로 양정마을에서 구례군청 앞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며 노제를 지냈다. 이후 섬진강 댐으로 가 다시 한번 위령제를 올렸다.



10일 오전 11시 구례군 구례읍 구례군청 앞에서 수해로 숨진 소의 넋을 달래는 노제가 열렸다.

<섬진강수해극복 구례군민대책본부>

주민들은 위령제와 노제 과정에서 섬진강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의 잘못으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섬진강수해극복 구례군민대책본부 관계자는 “자식처럼 애지중지 기르던 소들이 매일 처참하게 죽어 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타

들어 간다”며 “터앉은 보상으로 낙심과 실망하다 이제는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례군민들은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해서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전액을 배상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세계차엑스포 17~20일 온택트 개최

공식 홈페이지·유튜브 생중계

보성세계차엑스포가 오는 17~20일 나흘간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 ‘온택트’로 개최된다.

보성군은 제8회 보성세계차엑스포의 행사장과 특별무대를 북재와 대한다원(제2다원)에 마련하고, 오는 17일부터 나흘간 보성세계차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고 10일 밝혔다.

북재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차를 뽑는 세계차 품평대회·티블랜드대회 등이 열리며, 전문 심사위원 등 최소 인원으로도 진행된다.

대한다원에서는 보성차 랜선골든벨, 추가열·유지광이 출연하는 차밭 힐링토크, 명인이 만드는 차 음식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모든 프로그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된다. 보성차 랜선 골든벨은 영상통화를 활용해 17

일부터 19일까지 3차례 이어지며 우승자에게는 50만원 상당의 태블릿PC를 상품으로 지급한다.

행사 기간 동안 보성차를 5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홈쇼핑은 생산자가 직접 출연해 제품을 설명하면서 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홈쇼핑은 24시간 운영되며 행사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상시 방영한다.

또 보성세계차엑스포 홈페이지를 매일 방문한 사람에게 행운권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태블릿 PC·자전거·녹차세트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코로나 극복·수재민 돕기 온정 손길 잇따라

포스코케미칼, 광양보건소 의료진에 격려 물품

(주)포스코케미칼 광양사업장 노사 대표가 최근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광양시보건소 의료진에게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 <사진>

이번에 전달한 물품은 지난 4월 노사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레몬첼린지’의 기부금을 활용했다. 레몬첼린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레몬 1개를 섭취 후 1만9000원을 기부하고 다음 도전할 직원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정석조 포스코케미칼 광양로제사업장은 “코로나19로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며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최근 노사 합동으로 구례군 침수피해 봉사, 태풍피해 농가 복구, 코로나19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울산 정토사관자재회, 곡성에 가스레인지 151대 기탁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대표 노행삼)는 지난 7일 곡성 수해 이재민들에게 가스레인지 151대(1661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사진>

경남 울산 울주군에 있는 정토사관자재회는 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념에 따라 수행과 돌봄을 통해 세상의 빛이 되고자 노력하는 공동체이다.

곡성 이재민들은 수해로 삶의 터전인 주택이 파손되고 지붕까지 침수되면서 모든 가전제품이 망가져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가스레인지가 없어 조리를 하는데 큰 불편을 겪었는데 정토사관자재회의 의연품으로 조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여수시 공무원, 2000만원 모아 구례·곡성에 위문품

여수시 공무원들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구례군과 곡성군 수재민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여수시는 직원 1832명이 모은 2000여만원의 성금으로 가전제품을 마련, 최근 권오봉 시장은 구례군청과 곡성군청을 방문해 전달했다. 전달된 위문품은 구례군에 전기압력밥솥 43개, 곡성군에 전자레인지 55개다. <사진>

권 시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상심이 큰 피해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 속히 피해가 복구되기를 간

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